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효과적인 토론 수업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선택 과목 『화법』 수업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현 혜 진

효과적인 토론 수업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선택 과목 『화법』 수업을 중심으로 -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현 혜 진

인 준 서

현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와 타인의 말에 경청하기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보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하기에 급급하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토론 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토론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어과 교육에서 ‘토의·토론하기’를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교사들의 토론 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의 부족, 수업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 중심의 토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토론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토론 교육의 정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올바른 토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토론 수업의 제약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 수업 방안을 고찰하였다. 11~12학년의 선택 과목인 『화법』 수업 내에서의 토론 교육의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나아가 평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토론 교육, 패널식 찬반 토론, 학습자 중심, 피드백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토론 교육의 필요성	1
2. 토론 교육의 목적	3
3. 토론 수업의 제약 요인	4
4. 연구사 검토	5
II. 본론	9
1. 토론의 이해	9
(1) 토론의 개념	9
(2)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의 구분	12
(3) 토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의	13
(4) 토론 능력의 개념	18
2. 토론의 유형	19
(1) 아카데미식 토론	19
(2) 패널식 찬반 토론	21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과 화법 교과서의 문제점	25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분석	25
(2) 7차 『화법』 교과서의 문제점 검토	31
4. 토론 참여자와 교사의 역할	35

(1)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자세	35
(2) 토론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41
5.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 학습 방안	43
(1) 토론의 절차	44
(2) 토론 평가의 방법	54
6. 패널식 찬반토론 교수 · 학습의 실제 및 평가	60
III. 결론	8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토론과 토의의 구분	13
〈표 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교육의 목표	25
〈표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	26
〈표 4〉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27
〈표 5〉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과목의 내용 체계	29
〈표 6〉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과목의 ‘담화 유형’ 중 ‘토론’의 지도 내용	30
〈표 7〉 7차 「화법」 교과서 ‘토론’ 단원의 학습 목표	32
〈표 8〉 토론 사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조언	37
〈표 9〉 토론 수업의 절차 모형	44
〈표 10〉 교사의 토론 평가지	56
〈표 11〉 학생들 토론 평가지	58
〈표 12〉 패널식 찬반토론 교수·학습의 실제 예시	61

그 립 목 차

〈그림 1〉 토론의 자리 배치	49
------------------------	----

I. 서론

1. 토론 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토론 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05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서 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으로 학생들은 ‘발표하거나 토의·토론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22.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부모들 또한 ‘토의·토론하기’를 1위(22.3%)로 꼽았다. 또한 국어 수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표나 토론을 주로 하는 수업’이 16.8%로 3위였다. 국어 교육 평가와 개선 요구(정치·경제·사회·과학·문화계 인사)에서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대화·토론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 국어 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주 많았다.¹⁾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와 타인의 말에 경청하기이다. 이는 교육 관련자들의 국어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토론 교육은 이와 같은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실질 중심으

1)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 수업만으로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실전을 위해서는 이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부족한 수업 시간에 이론 따로 실전 따로 수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토론을 포함한 화법 수업은 대부분 이론 수업만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속에서 실전을 통해 이론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 교육은 논제를 정하고, 논제에 따라 쟁점 끌어내기, 입장을 정하고 입장에 따른 근거 자료 조사하기와 같은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장하기와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기, 반박하기 등의 토론을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토론 종료 후에 평가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학습하여 토론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토론 교육은 ‘토론 교육’과 ‘토론을 통한 교육’²⁾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토론 자체 교육을 위한 토론이며, 후자는 수업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토론이다.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토론 교육은 전자의 의미인 ‘토론 교육’을 일컫는다.

토론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토론 학습의 정착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올바른 토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11~12학년 화법 수업 내의 토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토론 수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론 수업의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은주(2004)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2. 토론 교육의 목적

토론은 언어, 비언어적 표현 능력은 물론이고, 거기에 함께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³⁾ 따라서 토론 수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생활이나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토론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둘째, 학생들의 표현 욕구와 사회화 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표현해서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자기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 토론은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론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토론은 논증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발음, 성량, 말의 속도 등의 반(半)언어적 표현 능력과 표정, 청중과의 눈맞춤 등의 비(非)언어적 표현 능력까지 요구된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토론을 하며 그 방법을 익혀 나아가야 한다.

넷째, 보다 높은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필검사로는 평가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분석력,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최복자,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 토론 능력과 토론 교육」, 한국화법학회, 2005.

다섯째,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토론 교육을 통해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토론 수업의 제약 요인

토론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 관련자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토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유교 사회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토론 문화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씩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보다 느린 속성이 있기에 쉽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토론’을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이 제대로 된 토론 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두 번째, 입시 위주의 교육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토론 능력이라는 것이 당장 확인할 수 없고, 입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외면당해 온 것이다. 입시 위주의 수업이 교과 내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어져 교과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토론 수업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원인으로는 지필검사로만 이루어진 평가방식 때문이다. 지필검사는 가장 편리한 평가방식이기도 하면서, 이의가 적은 평가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필검사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에 대한 보완점으로 수행평가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행평가로 토론을 실시하는 학교는 아주 드물다.

네 번째로 교사들의 토론 수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훈련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금 현장의 교사들은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받아보지 못했고, 토론 수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토론 수업을 어떻게 이끌고, 평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대부분 교사의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토론 수업은 낯설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50분이라는 수업 시간 안에 토론을 끝내기가 어렵고, 또 어떤 시간에 토론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다보니 토론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걸만 맴돌게 되며, 수업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토론의 매듭이 지어지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수업 진도가 바빠 토론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토론 수업을 위한 절차, 50분 수업 내에 끝낼 수 있는 토론 수업의 예시 모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사 검토

현대 사회에서 토론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토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론 연구는 화법 교육(또는 말하기

교육) 내의 한 범주로서 토론 교육이 다루어진 것이고 ‘토론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상준(1995)은 토의와 토론 단원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국어과 교육 과정을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국어 교육은 특정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제시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국어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재찬 외(1998)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토의·토론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 머물러 전략 중심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어과의 전 과정과 영역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 수업 모형과 활용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인섭(1998)은 화법 교육의 중요성으로 화법 교육이 모든 교육의 바탕이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사고를 세련하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문화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 등을 꼽았다. 또한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복자(2005)는 토론 능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토론 능력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토론 능력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능력, 의사소통 사회적 기능, 고등 사고 기능, 자료 분석 능력이라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엄이섭(2005)은 토의·토론 학습의 실태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국어 토의·토론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토의·토론 학습을 고등학교 국어과 수업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 토의·토론 학습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생각할 거리를 주

는 것이 수업 효과를 높였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기본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토의·토론 학습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 하였다.

이현숙(2006)은 통합 교육의 관점에서 토론의 단계를 토론 전 단계와 토론 단계, 토론 후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활동할 내용과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학년별로 실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와 중학교 생활국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고,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실제 토론을 실시한 후 토론이 학생들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박영희(2007)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 진도에 따라 사전 토론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토론의 원리나 방법을 습득한 후에 본격적인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사전 토론 교육의 학습 내용은 8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소단원 학습 내용을 근거로 쟁점이 될 만한 토론 주제를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노은희(2007)는 선택 과목 『화법』 교육의 현황과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을 살피고, 화법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다. 화법 교육과정은 대인 관계와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통합하여 화법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해야 하고, 선택과목으로써 경쟁력 있게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은주(2008)는 제7차 교육과정기의 『화법』 교과서 4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화법』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화법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단원 내용의 관계성과 일반성, 단원 체제의 기능성, 담화 수행 과제의 실제성과 맥락화, 완결성, 담화 자료의 실제성 등을 설정하였다. 끝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새 화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고

김지선(2008)은 현 학교 교육이 주입식·암기식·강의식의 수업만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토론 수업을 제안하였다. 토론식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고등학교 두 개 반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식 수업을 실시한 결과 토론식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통적 수업보다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위의 논문들은 화법(혹은 토론)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선 방안을 적용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즉 근래에 토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나, 토론 수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토론 교육’만을 다룬 연구가 아닌, 토의와 토론 학습을 함께 연계한 연구들이 많아 깊이 있는 토론 교육의 모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내에 있는 ‘토론’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토론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토론 수업을 통한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신장을 꾀하고자 한다.

수 년 전부터 토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토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토론 교육 지도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론 교육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지 못한 감이 있다. 따라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기를 바란다.

II. 본 론

1. 토론의 이해

(1) 토론의 개념

토론(debate)은 어떤 논제에 대해 긍정(혹은 찬성)과 부정(혹은 반대)으로 대립하는 양측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논증을 통해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힘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과정이다. 즉 토론 참여자들이 주장에 대한 검증과 논박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인 것이다.

토론은 서양의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아테네의 정치적 민회와 법정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채택하여 운영하던 아테네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법적 주요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던 나라였다. 도시국가는 그리스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 사람의 전체 군주의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 집단의 모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도시국가의 이러한 형성 배경을 바탕으로 아테네 시민⁴⁾이면 누구나 자기의 주장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던 공간이 바로 아고라(Agora)였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정을 오랫동안 유지하였기 때문에 토론이 민중들에게까지 활용되지는 못했으나, 지

4) 이때의 시민이란 자유민을 뜻하며, 여성과 노예, 반자유민인 이주민은 제외된다.

배 계층들의 정책 결정에는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 수립 후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토론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토론이 보다 친숙하게 되었다.

토론의 어원으로부터 토론의 정의를 살펴보면, ‘Debate’라는 단어는 라틴어 동사 ‘debattuere’에 기원을 두며 ‘debattuere’는 ‘de’와 ‘battuere’라는 의미소로 나눌 수 있다. 접두사 ‘de’는 ‘away(분리하다)’, 혹은 ‘down(제거하다)’의 의미이며 어간인 ‘battuere’는 이후 영어의 ‘battle(전쟁)’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라틴어 동사로서의 의미는 ‘to beat(치다)’였다. 결국 ‘debate’라는 말은 전쟁에 비유한 표현 과정에서 출발하여 언어로서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말의 토론(討論)은 토(討)와 론(論)으로, 토(討)는 다시 언(言)과 촌(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론(論)은 언(言)과 룬(倫)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토(討)는 말을 나누거나 쪼개어 분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론(論)은 말을 돌려가며 진행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 영어의 ‘debate’에 충실한 우리말 대응어는 ‘논쟁(論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서구에서 토론의 개념은 어원이 밝혀주듯 전쟁과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다. 즉 물리적 싸움인 ‘bate(to beat)’에서 분리(debate)되어 말로 하는 전쟁, 혹은 시합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말로도 논쟁이 ‘말이나 글로 다툰다(爭)’는 뜻이므로 ‘debate’란 말의 원래 의미를 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이란 말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태여 논쟁이란 말로 환언할 필요는 없다.⁵⁾

토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국립국어원에서는 토론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을 뜻한다고 정의 내

5) 강태완 외,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렸다. 이때의 토론 개념은 ‘논의⁶⁾’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넓은 의미로서의 토론으로 토의의 개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의이다. 그러나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⁷⁾에서는 토론을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서로 공존하거나 논쟁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필자⁸⁾는 ‘논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의 정의가 토론 개념의 정의에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즉 토론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대립되는 의견을 ‘말(言)’을 통해 서로 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토론은 행해지는 수단에 따라 구별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론은 그 수단에 따라 일반적 의미의 토론인 말(言)로 이루어지는 토론과 글(書)로 이루어지는 토론으로 나뉜다.⁹⁾ 글로 하는 토론은 말로 하는 토론보다 수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카데미식 토론¹⁰⁾에서는 글로 하는 토론을 실제적인 토론의 실행인 말로 하는 토론의 전(前)단계로 고려한다(Freeley, 1996). 본 논문에서도 글로 하는 토론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서 다루지 않고, 말로 하는 토론의 전(前)단계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모두 말(言)로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지칭한다.

6)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국립국어원.

7) 이희승 감수,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제4판), 민중서림, 1993.

8) 토론을 넓은 의미로서 토의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로서의 토론인 ‘Debate’만을 가리킨다는 의견에 따라 토의와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9) 박세환, 「토론 능력의 개념 구성 및 측정에 관한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언론 정보 대학원 석사 논문, 2001.

10) 아카데미식 토론(academic debate)이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적 단체의 통제 하에 행해지는 토론을 말한다. 대표적인 아카데미식 토론 방식은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와 NDT(National Debate Tournament) 등이 있다(Freeley, 1996).

(2)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¹¹⁾의 구분

토론과 토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지만, 토론과 토의를 구분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토론(debate)은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으며, 논쟁적·과정적 사고를 중시한다. 반면에 토의(discussion)는 특별한 규칙이나 규율 없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수렴적·결과적 사고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¹²⁾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어 의견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관점의 공존과 타협은 불가능하며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쟁적인 성격이 나타나 논쟁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토론의 이런 경쟁적인 성격이 소모적인 말싸움이나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론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고, 주장에 따른 적절한 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양측에 동일한 발언 기회를 주어 제한된 시간과 순서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득력을 입증하여 승리하는 것이 토론의 목표가 된다. 여기에서 토론의 형식적이고 과정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이에 반해 토의는 일종의 집단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결과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토의는 엄격한 규칙이나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말할 수 있도

11) 토론의 개념에 대해 토론을 'discussion', 토의를 'debate'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토론의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debate'가 토론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12) 강대현, 『초·중·고 토론학습지도자료 (3) -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 요령과 주제별 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록 하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형식적 특징이 나타난다. 논의 과정에서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수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토의이다.

토론에서는 사실과 논거에 의해 자기주장을 이성적으로 관철시키지만 토의는 참석자들이 개방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답을 구한다. 즉 토의에서는 타협, 흥정이 통하는 반면에 토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토론에서는 논제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하면 상대의 공격을 받기 쉬우며, 상대를 존중하나 상대의 의견은 반박의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토론과 토의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토론과 토의의 구분¹³⁾

	토론	토의
목적	설득	협의를 통한 결론 도출
성격	형식적, 공정한 절차 강조, 논쟁적·과정적 사고 중시, 경쟁적	비형식적, 자유로운 의사 개진, 수렴적·결과적 사고 중시, 개방적

(3) 토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의¹⁴⁾

① 논제(resolution, 論題)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논쟁점들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논제는

13) 최근에는 토론과 토의를 엄격하게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론과 토의는 표에서 볼 수 있듯, 목적과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 교육만을 다루기 때문에 토론과 토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14) 여기서 정의 내린 용어는 국립국어원을 참고로 한 것이다.

논쟁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명료하게 구분해주는 진술문이다. 좋은 논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견해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진술문은 피해야 한다. 또한 진실에 관한 법적 논쟁은 유죄, 혹은 무죄라는 두 가지 판단 중 하나만이 진실이라는 점에서 토론의 논제로서 부적절하다.¹⁵⁾ 이를테면 ‘사형제도는 야만적인 법이다.’나 ‘사형제도는 신의 논리에 어긋난다.’, 혹은 ‘그 사람은 범인이다.’와 같은 논제는 부적절하다. 또한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논제는 수많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논제라 할 수 없다. 결국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나 정책에 대한 논제로서 찬반양론이 모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성과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논쟁점이 찬반 양쪽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논제를 결정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논제에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만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형과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제는 사형과 낙태라는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는 사형금지에는 찬성하지만,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성립될 수 있다.¹⁶⁾ 둘째로는 진술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양측의 대립을 확실하게 하고 직접적인 의견 충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토론의 논제는 ‘~하여야 한다.(정책)’, ‘~이다.(사실)’의 형식으로 표현한다.¹⁷⁾ 셋째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논제여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복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제가 있다고 치자. 이때 ‘사회적 물의’의 범위(음주 운전, 병역 기피, 막말 파문 등)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중요해진다. 이 또한 입장에

15) 강태완 외(2001) 앞의 책.

16) 강태완 외(2001) 앞의 책.

17) 이주행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금성출판사, 2003.

따라 어떤 이는 음주 운전은 용서할 수 없으나 막말 파문은 용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논제는 토론 당시의 현실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토론자나 청중 모두가 토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토론자들의 자료 접근이 용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토론 준비 중에 논제나 쟁점을 바꾸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② 쟁점(issue, 爭點)

토론의 논제를 정했다면 그에 따른 쟁점을 정하는 것이 토론의 체계를 위해 필요하다. 쟁점이란 서로 다투는 데 중심이 되는 점이란 뜻으로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쟁점은 토론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하며 하나의 논제에도 가치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이나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쟁점을 짜두어야 토론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논제에 보통 2~3가지의 쟁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가령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제에 ①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잠재적 피해자는 알권리가 있다. VS 성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라는 쟁점과 ②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VS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쟁점으로 나누어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쟁점을 정해두면 인권 이야기와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마구 섞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이때 하나의 쟁점에 관한 토론이 끝나고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 갔을 때

다시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토론의 경우 쟁점¹⁸⁾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내재되어야 한다.

㉠ 정당화

- 제시된 문제가 현 상황 내에 지속적으로 내재하는 문제인가? (지속성)
- 제시된 문제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심각성)

㉡ 방안

- 제시된 방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실행 가능성)
- 제시된 방안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 가능성)

㉢ 이익

- 제시된 방안이 사회적인 이익을 낳을 것인가? (사회적 이익)
- 정책으로 야기될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것인가? (이익 > 불이익)

③ 논쟁(argument, 論爭)

논쟁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을 의미한다. 토론은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토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의견상의 차이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실이나 가치, 혹은 정책에 대

18) 강태완 외(2001)에서는 쟁점 중의 하나로 ‘필수쟁점(stock issues)’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필수 쟁점이란 찬성측이 논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 혹은 가치와 관련된 진술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쟁점이라는 말 안에 필수 쟁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고, ‘쟁점’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쟁점의 요소는 강태완 외(2001)를 따른다.

한 이견이 없다면 토론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토론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주제가 논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논증(argumentation, 論證)

논증이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거나 또는 그 근거나 이유를 일컫는 말로 토론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토론이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주장에 따른 논증이 없다면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며, 청중들도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적 긴장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토론자들은 근거 없이 주장만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전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논증은 다른 사람들(상대 토론자와 청중, 배심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신념, 태도, 가치 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논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⑤ 논거(basis of an argument, 論據)

논거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를 일컫는 말로 논거를 제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어떤 책이나 논문에서 참고한 것인지 등의 출처를 밝혀야 신뢰성 있는 토론이 된다. 또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여야 한다. 조작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각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⑥ 논박(refutation, 論駁)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을 논박이라 한다. 즉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에서는 논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술을 익힘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력과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박을 하자면 자신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도중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키워진다. 또한 논박을 한다는 자체가 상대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

(4) 토론 능력의 개념

토론 능력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능력’이란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토론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능력이란 말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통해 정의되고 있다. 첫째는 인지적 지식으로 ‘대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¹⁹⁾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지식은 행동적 영역인 실행과 정서적 영역을 제외한 비행동적 관점으로 능력을 보는 것이다. 즉 실행이 실제로 행동을 취함을 의미한다면 인지적 능력은 잠재적 능력을 말한다. 둘째는 실행이라고 불리는 행동적 영역이다. 이 행동적 영역에서 능력은 대체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증명 · 관찰 · 평가를 할 수 있는 형태

19) 최복자,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 논문, 2006.

로 걸어로 드러나게 된다.²⁰⁾ 셋째는 알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적합하게 수행할 줄 아는 것으로 인지적 지식과 행동적 영역을 포괄한 개념으로서의 능력이다. 가령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과정)을 안다.’는 인지적 지식이지만,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안다.’는 행동적 영역이다. 이 둘을 포괄한 개념으로서의 능력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직접 끓일 줄도 아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세 번째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즉 토론을 하는 방법-토론의 절차 이해하기, 주장하기, 경청하기, 반박하기, 평가하기 등-을 인지적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토론의 능력이고,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2. 토론의 유형

(1) 아카데미식 토론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자 토론이나 방송 토론은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지만, 아카데미식 토론은 논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 혹은 찬성과 반대 양측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 양측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카데미식 토론이란 ‘아카데미’라는 말 뜻 그대로 토론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배우고 엄격한 토론 형식 및 절차를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

20) 박세환(2001) 앞의 논문.

로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¹⁾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전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몇 가지의 토론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형식인 CEDA 형식의 토론과 링컨-더글러스 토론, 칼 포퍼 토론을 소개하겠다.

정책 토론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형식은 현재 미국의 대학 간 토론 대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찬성측과 반대측의 각 팀은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토론자들은 각각 세 번의 발언을 할 수가 있다. 즉 한 번씩의 입론과 반박, 교차 조사²³⁾를 하게 된다. 총 소요 시간은 60분과 72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링컨-더글러스 토론(Lincoln-Douglas Debate) 형식은 1858년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중간선거(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S.더글러스와 공화당의 A.링컨 사이에서 벌어졌던 토론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7회에 걸쳐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개하였다. 노예제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 지방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더글러스의 ‘주민투표론’에 대하여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링컨은 이때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졌으나, 이 토론의 결과 1860년 공화당 대통령후보에 지명되는 계기를 잡았다. 이 토론 방식은 가치 토론의 가장 대표적인 형

21) 강태완 외(2001) 앞의 책.

22) 강태완 외(2001) 앞의 책.

23) 교차 조사는 자신이 속한 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나 상대 토론자의 논리상 오류를 찾아내 자기 팀에 유리하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심문 과정이다. 이때 질문은 상대팀 주장의 사실 여부나, 자료의 신뢰성,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내 질문함으로써 추후의 반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 질문을 할 때에는 상대 토론자나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식이며, 현재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되었다. 1:1 토론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없으며, 총 소요 시간(32분)이 짧지만 교차 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칼 포퍼 토론(Karl Popper Debate) 형식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칼 포퍼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1994년에 만들어진 토론 방식으로,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반론을 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매 스피치마다 교차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국제토론교육협회(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 LDEA)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한다.²⁴⁾ 총 소요 시간은 44분이다.

(2) 패널식 찬반 토론

패널식 찬반 토론은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각각 나뉜 패널들이 참여하게 대립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주장과 반박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다른 토론 형식과 차이가 없다. 다만 발언의 순서와 횟수,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쪽 패널들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토론 유형이다. 현재 TV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토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인 ‘패널식 찬반 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실 토론의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들²⁵⁾을 극복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이 ‘패널식 찬반 토

24) 강태완 외(2001) 앞의 책.

25) 전은주(2004)에서는 교실 토론 교수-학습의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교실 전체 차원에서 3~5명의 학습자가 선발되어 대표로 수행을 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는 이들의 수행을 관찰하는 것으로 간접 수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모둠별로 토론 수행을 하게 하더라도 역할을 나누어야 하므로 동일한 경험을 보

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토론 대회나 선거 토론과 같은 경우에는 발언 횟수와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학급 토론은 학습자들에게 토론에 흥미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패널식 찬반 토론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카데미식 토론은 아니다. 아카데미식 토론은 엄격한 형식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토대²⁶⁾로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패널식 찬반 토론은 형식에 있어 시간과 순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각종 TV 토론이나 패널식 찬반 토론을 토의와 토론의 중간 형태로 보는 경우²⁷⁾가 있고, 토의의 한 유형 특히 '포럼²⁸⁾'과의 유사함을 들어 토의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패널식 찬반 토론을 변형된 토론의 한 형태로 보고자 한다. 필자 또한 패널식 찬반 토론이 포럼의 성격과 유사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토론과 토의의 개념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론은 대답하는

장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다.

둘째, 토론의 전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교수-학습 시간상 제약이 있다. 한 번의 토론 수행을 실제 토론 단계와 판정 단계만으로 보더라도 45분 동안에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교사가 모둠별 토론 수행의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없다.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인 수행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모둠별 토론은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전체 모둠을 관찰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26) 김복순, 『토론의 방법』, 국학자료원, 2007.

27) 김복순(2007)에서는 TV 토론이나 대선토론과 관련한 패널토론 등을 토론의 형식 및 규칙을 비형식적으로 확장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응용토론'이라고 하였다.

28) 포럼(forum)이란 대표자에 의해 토론 또는 강의가 끝난 후에 청중이 참여하는 공개 토의 형태이며, 청중이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 서로 상충되는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되며 청중과 토의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의의 한 형태이다.(강대현 외, 2006) 토론자들의 발언과 함께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포지엄과 형식이 비슷하나, 토론자끼리 혹은 청중과 토론자 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포지엄과 성격이 다르다. 심포지엄보다 포럼에서 청중들의 참여 기회가 더 많다.

양측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논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한다는 점과, 논쟁적이라는 점에서 토의와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패널식 찬반 토론은 토론의 성격과 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포럼은 청중의 참여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패널식 찬반 토론과 차이가 있다. 패널식 찬반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패널들의 토론이 격해지면 청중들의 참여 기회는 줄어들 수가 있다. 즉 패널식 찬반 토론이 이론적으로는 토의의 한 유형인 포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그 성격을 엄밀히 따져 보았을 때 토의의 유형이 아닌 토론의 한 유형임을 알 수가 있다. 패널식 찬반 토론은 논쟁적이고 대립적이며, 과정 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토의와는 엄밀하게 구분된다.

외국의 이론을 따르다 보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패널식 찬반 토론’을 토론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패널식 찬반 토론의 방식을 사용하는 TV 토론이 대중화되어 국민들은 대부분 패널식 찬반 토론을 토론의 대표적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식 찬반 토론을 토론의 유형에 포함시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패널식 찬반토론이 아카데미식 토론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규칙이나 규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론자 한 명 한 명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없을 뿐이지, 찬성과 반대 양측에 발언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토론자들은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이야기할 수 있다.²⁹⁾

즉 아카데미식 토론과 패널식 찬반 토론이 다른 점은 첫째, 패널식 찬반 토론은 정해진 시간과 순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패널식

29) 긴장감을 위해 논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굳이 발언권을 일일이 얻을 필요는 없으며 자유롭게 찬반 양측이 논쟁이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때 사회자는 찬성 측이든 반대측이든 어느 한 쪽이 발언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한 사람만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제지해 줄 필요가 있다.

찬반 토론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패널식 찬반 토론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정 자체를 중요시해서 결과는 청중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패널식 찬반 토론 학습의 장점은 첫째, 현재 고등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35~40명인 점을 생각해 볼 때 반 전체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방법이 패널식 찬반 토론이다. 패널식 찬반 토론은 찬성측과 반대측이 일정 인원(여기서는 찬, 반 각각 3명씩³⁰⁾ 짝을 짓는 것을 제안한다.) 나뉘어 논쟁을 하는 것인데, 사회자 한 명까지 포함한 토론자는 논제에 따른 토론을 직접 실행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청중으로서 혹은 평가 요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다. 청중들은 토론 중간에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패널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으므로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둘째, 청중까지 참여할 수 있는 패널식 찬반토론은 학습자들에게 지적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다. TV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³¹⁾이 대부분 이 유형을 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만 발언을 하다보면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 누구나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는 패널식 찬반토론은 토론자들에게 토론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게 만든다. 토론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 갈 때 청중들은 다음에는 누가 반박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며 토론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토론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자나 토론자, 논객의 자격을 지니는 청중들이 중심

30) 찬성측과 반대측의 패널이 각각 한 명씩일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지만, 반 전체 학습자가 모두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하였다.

31) MBC의 '100분 토론', KBS의 '심야토론', SBS의 '시사토론' 모두 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지켜보고 토론이 끝난 후 조언을 해 주는 보조자의 역할만을 하게 된다.

넷째, 토론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전체적인 토론을 관찰할 수가 있다. 소집단 토론의 경우 교사는 순회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론 지도가 어렵다.³²⁾ 그러나 패널식 찬반 토론의 경우 하나의 논제로 진행되는 토론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며 전체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과 화법 교과서의 문제점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분석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교육의 목표³³⁾

화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담화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우리말 문화를 창조하는 태도를 기른다.
--

32) 박영희, 「패널식 찬반 토론 학습의 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3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가. 화법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나. 화법의 절차와 전략을 익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다. 다양한 담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들 세 목표 중 ‘가’와 ‘나’는 화법 교육의 인지적 목표로 ‘가’는 화법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나’는 절차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 배양에 대한 목표이다. 그리고 ‘다’는 화법 교육의 정의적 목표에 해당한다.³⁴⁾ 즉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교육에서는 7차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활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맥락’에 대한 지식을 강조³⁵⁾한다는 점이다. 이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원래 지식에 포함되던 맥락을 내용체계의 한 범주로 설정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담화 상황에서 맥락과 담화 목적에 맞는 것을 이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³⁶⁾

듣기의 실제	말하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
- 설득하는 말 듣기	- 설득하는 말하기

34)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35) 최미숙 외(2008) 앞의 책.

- 사회적 상호작용의 말 듣기		- 사회적 상호작용의 말하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하기	
지식	기능	지식	기능
· 소통의 본질	· 내용 확인	· 소통의 본질	· 내용 생성
· 담화 특성	· 추론	· 담화 특성	· 내용 조직
· 매체 특성	· 평가와 감상	· 매체 특성	· 표현과 전달
맥락		맥락	
· 상황 맥락		· 상황 맥락	
· 사회 · 문화적 맥락		· 사회 · 문화적 맥락	

〈표 4〉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³⁷⁾

영역 구분	학 년	담화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듣기 영역	10	- 사회적 쟁점을 논제 로 한 토론	(2)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 입장 을 비교하여 논제 를 깊이 있게 이 해한다.	· 논제와 하위 쟁점 파악 하기 ·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 거 비교하기 · 논제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 논제와 관련된 자료 더 찾아보기
말하기 영역	7	- 일상생활 에서 제기되	(3) 인터넷 게시 판의 내용을 비판	· 인터넷 매체의 상화 작 용적 특성 이해하기

36) 교육과학기술부(2008) 앞의 책.

37) 교육과학기술부(2008) 앞의 책.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토론	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10		- 사회적 쟁점을 논제로 한 토론	(3)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 알기 · 논제의 성격 및 쟁점 분석하기 · 반론의 유형과 구조 탐구하기 · 협력적으로 상호 교섭하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토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위의 표와 같다. 10학년 듣기와 말하기 성취 기준에는 토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중학교에 해당되는 7~9학년까지는 7학년 말하기 영역에만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인터넷 토론'하기이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토론하는 수업은 아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 토론 교육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토론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 생각된다.

토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고등학교 화법 수업만을 위한 연구이지만,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꾸준한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초·중학교에서 질 높은 토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몇 번의 토론 참여를 경험하게 되면 토론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토론 참여라 하는 것은 수업 방법으로서의 토론이 아닌 토론 자체의 교육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5〉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과목의 내용 체계³⁸⁾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법의 성격 · 화법의 요소 · 화법의 유형 · 화법과 매체 	
<p>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구성 - 언어적 ·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인식 -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 - 주도와 협력 - 말하기 불안 해소 ·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생산의 점검과 조정 -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검과 조정 	<p>답화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 면접 · 토의 · 토론 · 협상 · 발표 · 연설

38) 교육과학기술부(2008) 앞의 책.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과목의 교육 내용이 음성언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더 심화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법」 과목에서는 맥락에 대한 개념적 학습도 ‘지식’ 범주의 ‘화법 요소’에서 포괄적으로 지도하게 구성해 놓았다.

〈표 4〉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담화 유형’ 중에서 네 번째 ‘토론’의 세부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과목의 ‘담화 유형’ 중 ‘토론’의 지도 내용

(4)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론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한다. ②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론한다. ③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듣는다.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말한다.
--------	--

지도 내용 ①번과 ②번, 그리고 ④번은 10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③번은 10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과목 중 ‘토론’의 지도 내용에서는 토론의 형식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것까지를 중요시 한다. 즉 「화법」 과목 내용 체계의 ‘지식’ 과 ‘기능’ 모든 측면이 지도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에서는 토론 참여자의 듣기와 말하기, 사회자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청중들의 역할도 토론 참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학급 토론에서 토론 참여자만의 토론이 되지 않으려면 청중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청중들 또한 토론자들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청중들을 배제한 토론자들만의 토론이 된다면 청중들은 50분의 토론 수업이 지루해질 것이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는 수업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토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반 학습자들 모두가 지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토론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중들의 자세와 태도가 토론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토론의 지도 내용에서 위의 표에 언급된 것 외에 ⑤번에는 ‘청중의 자세와 태도를 알고, 토론자들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듣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2) 7차 『화법』 교과서의 문제점 검토

교육 현장에서 특정의 과목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반영한 교재로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재의 구실을 하며, 수월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교과서보다 더 큰 의의를 지니는 교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³⁹⁾ 화법 교과서 역시 ‘화법’ 과목을 지도하기 위한 교재로 화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현된 것이어야 한

39)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다.⁴⁰⁾

‘토론 교육’은 화법 과목에 속하는 영역으로 화법 교과서에 하나의 단원 내용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⁴¹⁾을 담아 출판된 교과서로는 형설출판사의 김광해 외(2003), 금성출판사의 이주행 외(2003), 세기문화사의 이중구(2003), 지학사의 차배근(2003)의 총 4종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교과서에 나타난 토론 단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하 기술의 편의상 이 글에서 형설출판사의 김광해 외(2003)를 ‘가’ 교과서, 금성출판사의 이주행 외(2003)를 ‘나’ 교과서, 세기문화사의 이중구(2003)를 ‘다’ 교과서, 지학사의 차배근(2003)을 ‘라’ 교과서로 부르기로 하겠다.

우선 7차 화법 교과서 토론 단원의 대단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7〉 7차 「화법」 교과서 ‘토론’ 단원의 학습 목표

	‘가’ 교과서 - 김광해 외(형설 출판사)
학습 목표	1. 토론의 개념, 목적, 방법, 형식을 알 수 있다. 2. 토론의 목적과 종류에 맞게 토론할 수 있다. 3.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를 알 수 있다. 4. 토론 참여자의 역할에 맞게 토론할 수 있다. 5. 토론 참여자로서 상대의 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토론할 수 있다. 6. 토론 참여자로서 침착한 태도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토론할 수 있다.

40) 전은주, 「‘화법’ 교과서의 요건과 개발 방향」, 한국화법학회, 2008.

41)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담은 『화법』 교과서가 아직 출간되지 않아서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담은 『화법』 교과서를 분석하도록 한다.

	‘나’ 교과서 - 이주행 외(금성출판사)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론의 개념, 목적, 절차, 방법을 안다. 2. 토론 사회자와 참여자가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론한다. 3. 상대의 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는다. 4.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며 상대의 말을 차분히 듣는다.
	‘다’ 교과서 - 이중구 (세기문화사)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론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을 안다. 2. 토론 사회자와 참여자가 역할과 책임을 안다. 3. 상대방의 말을 생각하며 듣는 태도를 알고 실천한다.
	‘라’ 교과서 - 차배근 (지학사)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론의 특성, 구실, 쓰임새 등을 알아보자. 2. 토론의 여러 종류와 방식을 알아보자 3. 토론의 진행 방법과 규칙을 알아보자 4. 토론의 효과적 방법을 알고, 실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보자.

‘가’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 학습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대단원 도입 부분 ‘미리 해 보기’ 밑에 ‘이 단원에서는...’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소단원 학습 목표를 한꺼번에 제시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6개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 토론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듯 다른 교과서에 비해 수행적인 측면이 학습 목표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교과서도 4개 항목 중 3개가 수행적인 측면으로, 그 중 3개의 항목은 ‘~ 듣는다.’로 제시되어 있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듣기’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교과서는 3개 중 2개의 항목이 ‘~을 안다.’로 제시되어 수행보다는

지식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소단원 (2), (3)의 학습 목표에서 ‘~ 토론한다.’와 ‘~ 듣는다.’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단원 학습목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라’ 교과서도 ‘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대단원 학습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대단원 도입 부분 ‘들머리 학습’ 밑에 ‘이 단원에서는...’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도 4개 중 3개의 항목이 ‘~을 알아보자.’로 지식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교과서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6개의 소단원 학습 목표 중에서 고작 1개만이 ‘~ 실제로 할 수 있다.’이다.

토론 교육에서 단순히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형식적인 측면을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지만, 이론을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습득 후에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실행의 단계가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능력이란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영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개의 교과서 모두 학습 활동의 대부분이 인지적인 능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대부분 인지적인 측면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 학교 토론 수업에서도 수행이 아닌 이론 수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의 교과서가 먼저 수행 중심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그 다음 문제이다.

4. 토론 참여자와 교사의 역할

(1)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자세

① 사회자의 역할과 자세

토론 사회자의 역할과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고와 공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설사 평소에 어떤 한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생각을 절대로 내비쳐서는 안 된다. 또한 토론은 토론자들의 토론이 되어야지 사회자가 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사회자는 자기 발언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청중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나 개념에 대한 질문을 청중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

둘째, 토론의 논제 및 쟁점을 설명해 주고,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론자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이를 지적하고 논제의 범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토론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이며,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생각되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도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이다.

셋째, 사회자는 논제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가이거나 달변가일 필요는 없지만, 토론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 위해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논제에 대해 토론자만큼 알 필요는 없어도, 청중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자 또한 토론 전에 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룰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거론되지 않을 때에는 사회자가 질문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나,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는 사회자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 준다.

넷째, 토론의 중간 중간 사회자는 청중들에게 토론의 내용을 요약해 주어, 토론의 이해를 도와준다. 토론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해 주는 일은 토론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토론의 내용을 요약해 줌으로써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도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토론에 불이 붙지 않아 토론이 지루하고 늘어선 느낌이 들 때에는 사회자가 적절히 개입해서 토론에 불을 붙이는 ‘방화범’의 역할을 하고, 토론이 너무 격양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소방수’의 역할도 해 주어야 한다. 사회자는 지나치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토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체크는 물론이고, 발언의 기회도 정해준다. 발언의 기회는 양측에 골고루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언을 많이 하지 못하는 토론자에게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토론 중간에 청중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는 것도 사회자가 선택할 수 있다. 토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3~4명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명 정도의 질문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 이때 한 명이 찬성측에 질문을 했다면, 다른 한 명은 반대측에 질문할 사람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토론의 사회자가 유능한 토론자로서 사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의사항을 간추려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토론 사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조언⁴²⁾

- 하나. 토론 진행을 위한 운영 규칙을 세워라.
- 둘. 모든 참가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라.
- 셋. 감정을 사실로 바꾸어 끌어들여라.
- 넷.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들을 주제로 바꾸게 하라.
- 다섯.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라.
- 여섯. 어느 편도 들지 말라.
- 일곱. 비판을 허용하라.
- 여덟. 인신공격을 저지하라.
- 아홉. 공통점을 강조하라.
- 열. 끝까지 사회를 포기하지 말라.

② 토론자의 역할과 자세

토론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토론자이기 때문에 토론자의 역할과 자세는 가장 중요하다. 토론자의 역할과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토론자는 토론할 논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 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입장이 헛갈리지 않게 된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측의 주장이 설득적일 때 그 주장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토론자는 양측 주장의 대립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42) 이중구,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세기문화사, 2003.

논증 자료는 통계 자료, 사례 자료 등이 있는데, 이때의 자료는 사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여야 한다. 토론자는 상대방이 수집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해 보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검증할 때에는 우선 그것이 증거로서 적합한지 검토한 다음,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 검토하는 방법을 취한다. 검증 방법은 크게 질의 검증과 양의 검증 두 가지가 있다. 질(質)의 검증은 주어진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정확한가, 최근의 자료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양(量)의 검증은 자료가 충분하며 완벽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기 팀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 그 반박에 대해 또 다른 반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박 대 반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토론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개인 대 개인의 토론이 아닌 팀별 토론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에서부터 토론 진행의 계획을 세우는 데 팀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성공적인 토론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둘째,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꼭 지켜야 한다. 발언권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발언을 많이 하지 못한 친구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용히 경청하는 자세도 지녀야 한다. 상대방이 발언을 하는 중이나 자신의 팀원이 발언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의 발언이 끝난 후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도록 한다. 주장을 명백히 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43) 김광해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형설출판사, 2003.

셋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그 말에 논리적인 허점은 없는지, 논거는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 발언의 부당함을 공격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자신이 어떤 논박을 해야 할 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한다.

논박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청중들이 발언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논제와 상관없는 말로 상대방을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세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상에 기대앉거나 비스듬히 앉기, 의자 흔들기, 다리를 꼬거나 흔들기, 손으로 볼펜 굴리기, 턱을 괴기 등은 청중들에게 거만하거나 경망스러운 인상을 준다. 또한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거나,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는 표현으로 손을 내젓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태도이다.

그리고 공손한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라는 표현보다는 ‘저’를 사용하고, 제삼자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직함이나 ‘씨’를 붙여야 한다.⁴⁴⁾ 늘 비격식체의 낮춤말로 대하는 친구들이라서 토론이 진행되다 보면 평소의 말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공격을 받았을 때에 감정적으로 논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응해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요소와 반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비(非)언어란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표현 방식으로 몸짓이나, 얼굴 표정, 눈빛, 시선, 자세, 손동작, 옷차림 등을 나타낸다. 주로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의 반사적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반(半)언어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으로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실현되는 말의 강세,

44) 이주행 외(2003) 앞의 책.

말의 속도, 음조, 말투, 성량, 억양, 발음 등을 일컫는다. 언어적 표현이 없는 침묵 또한 언어 외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적절한 비언어적 요소와 반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면 설득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비언어와 반언어의 사용은 아무리 논쟁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예컨대 너무 작은 목소리, 정확하지 못한 발음, 잦은 철회 등의 사용은 청중들의 호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바른 자세로 청중들과 자주 시선을 맞추고,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발언하는 토론자는 그의 주장이 좀 더 신뢰성 있게 느껴지도록 한다.

③ 청중들의 역할과 자세

반 학생 모두가 토론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청중의 입장이 된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청중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첫째, 토론의 활기를 띄우거나 토론이 산만하지 않게 하는 데 청중들의 자세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잡담 소리가 들린다거나, 청중들이 토론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토론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뿐만이 아니라, 청중들의 자세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교사는 이를 학습자에게 인지시켜 준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잡담을 한다거나, 토론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청중이 없는지 교사는 수시로 체크한다.

둘째, 사회자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지켜보아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만을 고집하며 듣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경청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자들의 주장이 논

리적인지, 근거는 타당한지, 자료의 출처는 명확한지, 토론자들의 자세는 올바른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듣도록 한다.

셋째,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필기를 하며 듣는 것도 좋은 습관이며, 토론을 듣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청중 질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의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부분을 피드백해 주고, 다른 청중들과 교사의 피드백을 경청하도록 한다. 청중들은 진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익혀둘 필요가 있다.

(2) 토론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토론 수업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토론은 학생들이 이끌어가지만, 토론 수업의 전 단계에서 교사가 토론의 형식과 절차, 주의점 등에 대해 학습자들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이루어진 토론 영상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토론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직접적으로 토론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토론자들을 평가해야 하므로 교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사는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TV 토론이나 학생 토론 장면을 보여주며, 토론자의 자세나 토론의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토론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해

서 보여준다. 가령 논리적인 토론자의 발언과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함께 보여주며 대조를 시켜준다든지, 참신한 수사적 표현 방법을 쓰거나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신뢰감과 설득력을 높이는 예도 보여줄 수 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좋은 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태도나 발언을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방이 발언을 하는데 비웃고 있는 모습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 논증 없이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 턱을 괴거나 상대방의 발언은 듣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무엇이 문제인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한다면 수업에 주의집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화법’ 수업 시간은 50분이다. 토론을 하기에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의 논제에 대한 토론을 1차시 수업 동안 끝낼 수 있으려면, 40분을 토론 시간으로 정해둔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청중들과 교사의 토론에 대한 피드백 시간으로 남겨둔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토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 주의 토론 조는 쉬는 시간에 자리 배치를 끝내 두고, 교사는 수업 시작 전에 교실에 입실하여 수업 시간이 되자마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 시간을 꼭 지켜야 함을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토론 시작과 동시에 40분이 지나면 무조건 토론을 끝맺어야 함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야지만 토론이 끝난 후, 다른 학생들(청중)의 피드백과 교사의 마무리 피드백 시간이 남기 때문이다. 토론이 끝난 후 청중들의 피드백을 3~4명 정도 듣고, 나머지 시간에 교사가 토론을 정리하며 토론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 청중 피드백을 누가할지는 피드백을 원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게 한 다음 교사가 지정해 준다. 모든 조의 토론이 끝날 때까지 골고루 피드백의 발언 기

회를 주도록 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이나 교사의 피드백은 점수를 위한 피드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자들의 토론 능력 향상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무엇보다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위에 제시된 토론자와 사회자, 청중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지시켜 준다.

5.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은 11~12학년의 선택 과목인 『화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깊이 있고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토론 학습의 성격상 다른 학생들이 하는 토론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토론 능력을 키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모두가 최소한 한 번의 토론을 실제로 수행해 보아야 토론 능력의 인지적 지식과 행동적 영역을 모두 습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1학기 화법 시간에는 대화, 면접, 토의, 협상, 발표, 연설 등의 화법 수업을 진행⁴⁵⁾하고, 2학기 동안은 모두 토론 수업⁴⁶⁾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3명씩 팀을 이루고 사회자 한 명까지 포함하면 1

45) 발표나 연설, 면접 등은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며, 한 명당 발표 시간을 3~5분 정도로 잡으면 한 학기 동안 35~40명의 학생들은 한 번씩의 발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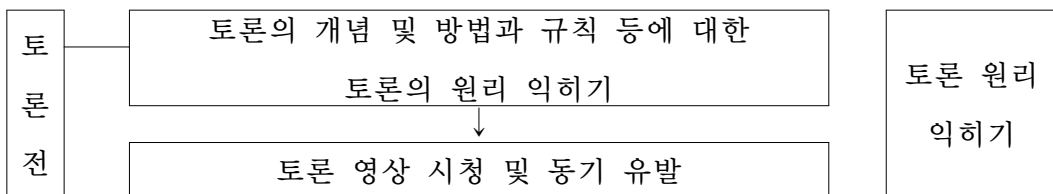
46) 한 주에 화법 수업을 한 차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학기 모두 토론 수업을 하게 되지만, 화법 수업이 한 주에 두 번이 있으면 나머지 반 학기 동안은 다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차시 동안 7명의 학습자들은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35~40명으로 계산한다면 총 5~6차시 동안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토론자가 되어볼 수 있다. 그렇게 매주 다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반 학생들 모두 1번씩의 토론 실습이 끝나면 그 팀 그대로 다시 한 번 토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의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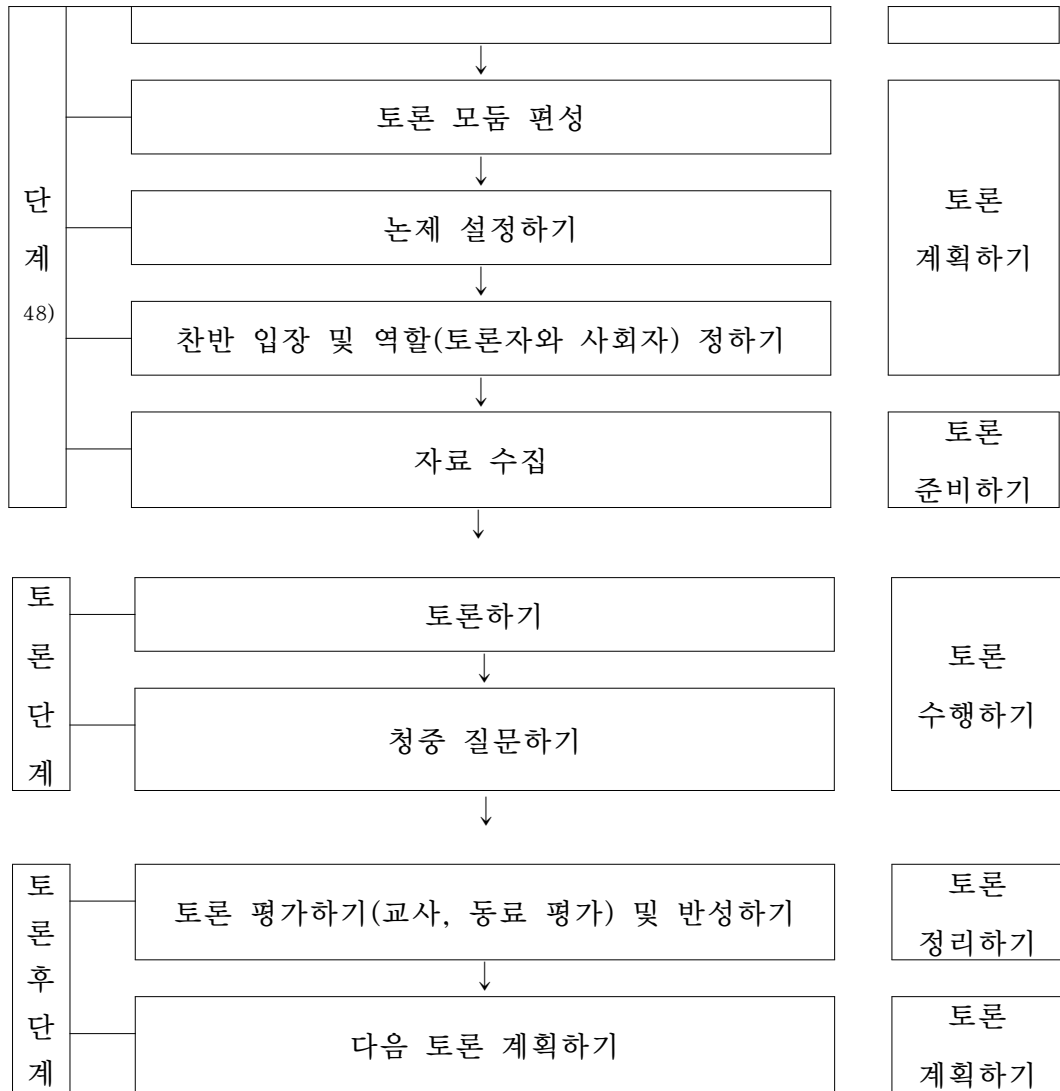
학습자들이 토론을 직접 수행해보기 전 1~2차시 동안은 토론의 절차와 방법, 자세 등에 관한 교사의 강의와 질의 응답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이 총 두 번의 토론 경험을 마친 후에는 학급 대 학급 혹은 학교 대 학교의 대표 토론을 진행한다. 이때 대표 토론자는 학생들의 자원이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면 된다. 학급마다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자의 인원을 교사의 재량으로 2명이나 4명으로 짤 수도 있다.

(1) 토론의 절차

〈표 9〉 토론 수업의 절차 모형⁴⁷⁾



47) ‘토론의 원리 익히기’ 단계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주를 이룬다. 물론 이때에도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수업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상의해서 계획을 하고, ‘토론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역할이 커야하고 교사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한다. ‘토론 수행하기’ 단계는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토론 실행이 끝난 후, ‘토론 정리하기’ 단계에서 교사의 개입(피드백, 다음 토론 계획하기)이 이루어지며, 토론을 끝맺으면 된다.



48) 토론 전 단계(토론의 원리 익히기, 토론 계획하기)는 실제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 총 2~3 차시에 걸쳐 토론에 관한 교사의 이론 중심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강의식 수업과 발표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차시나 4차시부터 실제 토론하기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즉 토론에 관한 이론 수업(토론 전 단계)이 끝난 다음부터는 토론 단계와 토론 후 단계가 계속 번갈아 가는 것이다.

① 토론 전 단계 (준비하기)

가. 교사의 역할

우선 토론의 전 단계에서 1~2차시에 걸쳐 토론자와 사회자, 청중의 역할과 태도를 인지시켜 주고, 증거 수집의 방법과 토론의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때 편집된 토론 영상을 보여주며 지도한다. 학습자들에게 토론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 토론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하며, 발표 때 나온 의견을 참고해서 각 조별로 논제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 후 피드백과 토론 주제 선정을 위해 각 학급별로 인터넷 클럽을 만들어 활용한다. 클럽을 통해 각 조원들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그 주에 어떤 토론이 진행될지 토론자 외의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리 그 토론 논제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나. 토론 모둠 편성

한 반의 학생이 35~40명이라고 가정한다. 토론에 대한 이론 수업이 끝난 후, 논제 설정 전에 토론 모둠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명을 우선 한 모둠으로 정한다. 논제를 정한 다음 사회자 한 명⁴⁹⁾을 선정하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3명씩 모둠을 이루면 1차시 동안 7명의 학습자들은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총 5~6차시 동안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토론자가 되어볼 수 있는 것이다. 매주 다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반 학생

49) 사회자는 찬성과 반대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으며, 사회자는 개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

들 모두 1번씩의 토론 실습이 끝나면 다시 한 번 토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 팀 그대로 구성을 하되, 첫 번째 토론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첫 번째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을 했던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 두 번째 토론에서는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 사회자는 양쪽 팀에서 지원자로 선발하도록 한다. 한 명이 사회자로 선발되어 빠진 팀에 첫 번째 토론의 사회자였던 학생이 들어가면 된다.

다. 논제 설정

토론의 논제는 교사와 해당 토론의 토론자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토론 주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2주 정도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만 시의(時宜)적인 토론의 논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제가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어야 토론이 활기를 띌 수 있다. 이 외에 논제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본고의 II-1-(3)-②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라. 자료 수집

토론에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자들의 자료 준비가 철저하지 않다면 토론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상대측 입장에 유리한 자료까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지 상대측이 어떻게 주장할 것이며, 그에 따른 반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자료에는 통계 자료 · 실례 등의 사실적 증거 자료와 의견 · 관찰자의 증언 등의 의견적 증거 자료, 그리고 정황적 증거 자료가 있다.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반드시 그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면 올바른 논증이 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논박을 받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은 논제와 관련된 토론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도서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봐야할지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나 참고 도서, 도움이 될 만한 토론 영상을 볼 수 있는 곳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각 방송사마다 토론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팀원들이 다 같이 시청해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의 토론 광장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팀원들이 다 함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관련 도서를 찾아보고 토론에 필요한 자료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토론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MBC 100분 토론)

<http://www.kbs.co.kr/1tv/sisa/toron> (KBS 심야토론)

<http://www.sbs.co.kr/new/tv/opinion> (SBS 시사토론)

<http://agora.media.daum.net> (Daum 아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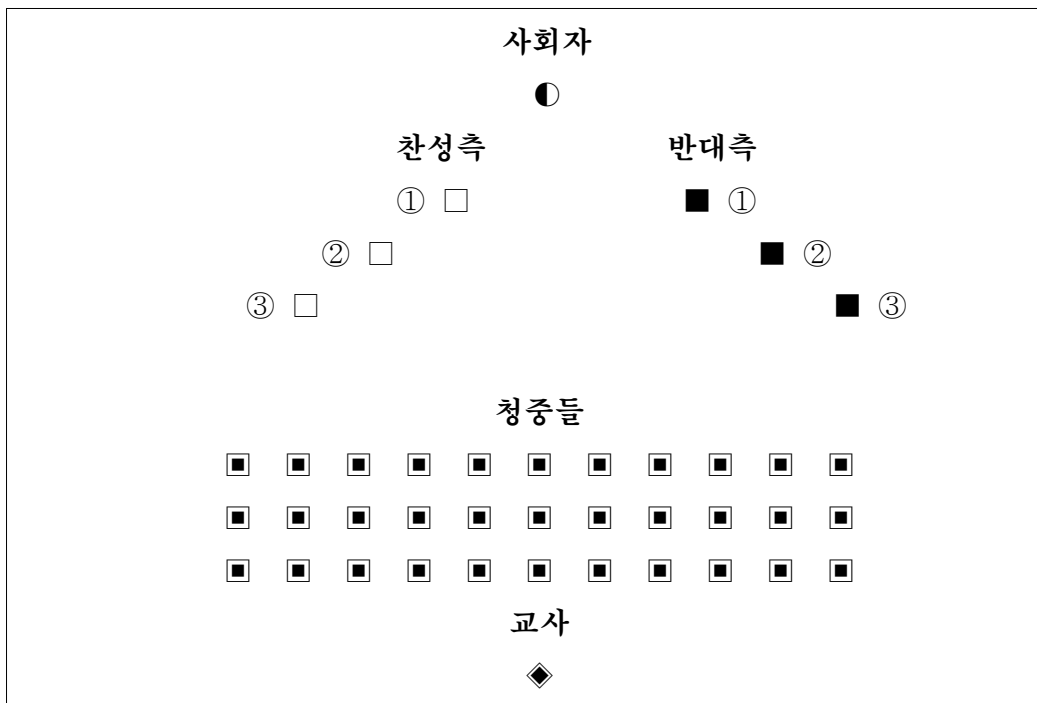
<http://www.hani.co.kr/section-012000000/home01.html>(한겨레신문 토론)

<http://www.openforum.ba.ro> (토론 전문 사이트 열린 광장)

마. 자리 배치

자리 배치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쉬는 시간에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한다. 먼저 전면 중앙에 사회자의 자리를 배치하고, 사회자의 오른쪽에 찬성측이, 왼쪽에 반대측이 나란히 대각선 방향으로 앉도록 한다. 청중들이 패널들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패널들의 자리를 사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널 앞 쪽에는 청중들이 3~4줄을 이루어 패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란히 자리하도록 한다. 교사는 맨 뒤쪽에 자리를 잡고, 청중들의 자세를 지켜보고, 패널들의 토론을 평가한다. 자리 배치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토론의 자리 배치



② 토론 단계 (토론하기)

가. 논제 설명

수업 시작과 동시에 사회자는 토론 논제에 대한 설명과 패널 소개로 토론을 시작한다. 논제에 대한 설명은 논제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 논제와 관련된 배경설명 등과 함께 쟁점의 내용과 순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⁵⁰⁾ 이때 사회자는 멘트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의 정보와 쟁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

나. 기조 발언

사회자의 소개가 끝난 후에는 찬성측이나 반대측 중 기조발언⁵¹⁾을 하고, 기조발언이 끝나면 그 발언에 대해 상대측에서 반박하는 것으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기조발언을 어느 팀에서 먼저 할 것인지는 토론 전에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기조발언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발언이 길어지면 토론이 자칫 지루하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적당하다. 또한 기조발언에서 앞으로 주장할 내용을 모두 나열해 버리면 토론의 긴장감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기조발언

50) 김복순, 『토론의 방법』, 국학자료원, 2007.

51) 기조발언은 토론에 앞서 자신의 팀에서 주장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조발언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지를 개략적이고 명쾌하게 말하는 것이다.

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던져 주면 청중들은 생각할 여유를 뺏겨 버리기 때문이다.

다. 쟁점 토론

두 가지의 쟁점을 설정했다 가정하면,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10분 정도 흐른 후에 청중들의 질문 시간과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을 5분 정도 갖고, 다시 두 번째 쟁점으로 돌아와 5분 정도 더 토론을 진행한 다음 나머지 5분 동안 대안에 관한 토론이나 마무리 토론을 한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최대 20분을 넘지 않아야 다음 쟁점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되면 교사가 토론 중에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정도는 괜찮다.

라. 청중 질문

토론자들만의 토론이 아닌 반 학습자 모두의 토론이 되려면 청중들이 질문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중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토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중들은 중요한 사안인데 토론 중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거나, 토론자들의 발언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중 질문 시간에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도록 한다. 발언 기회는 사회자가 정한다.

마. 마무리

사회자는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끊임없이 시간을 체크해 가며,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10분과 5분의 시간이 남았을 때 토론자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 준다. 40분의 시간이 지나면 교사는 주어진 토론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사회자는 마무리 멘트를 한다.

③ 토론 후 단계

가. 토론 평가하기

40분의 토론이 끝나면 바로 청중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청중들의 피드백 참여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순서는 교사가 지정해 준다. 즉 청중들의 청중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만 평가의 대상이 되면, 자칫 토론자들만의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하려는 지원자가 많을 시에는 몇 명의 이야기만 듣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못한 나머지 청중들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클럽에 올리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피드백 한 것이나, 인터넷 클럽에 올린 것 모두 동일한 점수로 채점을 한다. 학생들의 피드백이 끝나면 교사가 학생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마무리 피드백을 해 주며 토론을 끝마치면 된다.

피드백이 끝났다면 청중이었던 학생들은 1~2분 정도 평가지를 작성하면 된다. 평가지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도록 평가지는 되도록 간단하게 만들도록 한다.

평가의 대상은 토론자뿐만 아니라, 사회자와 청중 모두 포함되며, 토론자는 발언의 내용 및 발언 횟수와 자세 등을 평가받고, 청중들은 피드백 여부와 자세 등을 평가받는다. 사회자는 논제 설명 및 내용 정리는 잘 했는지, 양쪽에 골고루 발언 기회는 주었는지 등을 평가받는다. 즉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과 자세, 팀원들 간의 협동, 자료 준비도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며, 토론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발언 횟수까지도 평가된다.

나. 인터넷 클럽을 이용한 학생들의 평가

수업은 50분이라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중들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발표나 피드백을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발언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 물론 화법 시간은 그런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 그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해 나가면서 차츰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청중들의 의견란을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또 토론자는 그에 대한 대답이나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인터넷 클럽에 올린 의견을 교사가 수시로 체크해 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다음 토론 논제 설정

토론이 끝나면 다음에 하게 될 토론조의 논제를 설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1주일 전보다는 2주 정도 전에 논제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토론 준비와 연습

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론의 논제는 다른 조에서 다루지 않았던 논제여야 하고, 시의적이고 청중들의 관심을 끌 만한 논제로 토론자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되 교사가 조언을 해 준다. 혹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오래된 논제라 하더라도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논제라면 토론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논제를 정했다면 그에 다른 쟁점을 두 가지 정도 정하도록 한다. 논제에 대한 내용을 토론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쟁점은 자료 조사 후에 정할 수도 있다. 논제를 선정하는 것보다 쟁점을 정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교사는 토론자들이 적절한 쟁점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토론 평가의 방법

① 교사의 평가

토론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토론의 준비 과정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토론의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자료 조사에 대한 평가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토론 자료를 사전에 조사해 오도록 한 것에 대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성실도나 조사해 온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⁵²⁾ 토론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상, 중, 하로 평가하면 된다.

토론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논리적 내용 구성 측면과 형식적 측면, 학생들의 태도 및 자세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52) 구정화, 『학교 토론수업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9.

토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장의 논리적인 측면이다. 자신의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대로 피력했느냐, 상대의 논리적 부당성을 제대로 짚어내었느냐를 평가하면 된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을 했는지, 증거가 적절하고 타당한지 등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는지의 여부도 평가한다.

토론은 논리적이고 경쟁적인 말하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대측의 주장을 잘 듣기도 중요하다. 상대측의 주장에 맞지 않는 다른 내용의 반박을 한다든지, 다른 토론자들이 이야기 하는 중에 끼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잘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토론의 규칙을 잘 지켰는지,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 열의가 느껴지고 적극적인지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회자는 토론 시간 관리가 적절했는지, 발언 시간 배분 등이 공평했는지도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토론 평가 시에 빼 놓지 말아야 할 것이, 태도와 자세에 관한 부분이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비웃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말하기의 상황이므로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턱을 괴거나 삐딱하게 앉는 자세도 해서는 안 되므로 이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중 평가는 잡담을 하거나, 자거나, 자세가 삐딱하거나 토론 중 비웃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이름을 적어 두고, 개인별 총 평가 때 감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피드백 여부는 수업 시간과 인터넷 클럽에 올린 횟수를 종합해서 개인별 총 평가 때 가점의 방식으로 한다. 피드백 여부를 질적인 아닌 양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중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

교사의 평가지는 되도록 세부적이어야 한다. 그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교사의 토론 평가지

평가 대상자 : ___학년 ___반 ____, __조							
1. 토론 준비 과정 평가				(상 10점, 중 7점, 하 5점)			
평가 대상		상	중	하			
1. 사회자							
2. 찬성측							
3. 반대측							
2. 사회자 평가				(상 3점, 중 2점, 하 1점)			
평가 항목		상	중	하			
내용적 측면	① 논제 설명 및 쟁점 제시						
	② 내용 이해도 및 내용 정리						
	③ 독립적 입장						
형식적 측면	④ 시간 관리 및 쟁점 관리						
	⑤ 발언 순서와 시간 배분						
	⑥ 발음 및 어조						
자세 및 태도	⑦ 열의와 적극성						
	⑧ 바른 자세 및 공손한 말투						
3. 토론자 평가				(상, 중, 하로 표시 / 상 3점, 중 2점, 하 1점)			
이름		찬 성	찬 성	찬 성	반 대	반 대	반 대
내용적	①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						

측면	성, 설득성, 명쾌성, 신뢰성						
	② 반박의 논리성 및 치밀성, 창의성						
	③ 자료 이해도 및 자료의 적절성, 신뢰성						
형식적 측면	④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및 전달 능력						
	⑤ 토론 규칙 지키기						
자세 및 태도	⑥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⑦ 바른 자세 및 공손한 말투						
⑧ 팀워크							
발언 횟수 (‘正’표시)							
4. 청중 평가							
1. 토론 자세 (감점의 방식)							
2. 피드백 여부 (가점의 방식)							

한 명당 토론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토론 한 번을 50점 만점으로 하여 한 학기가 끝날 때 두 번의 토론 점수를 합산한다. 토론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교사가 평가한다. ‘상’은 10점, ‘중’은 7점, ‘하’는 5점이다. 토론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는 팀별로 점수를 매긴다.

토론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평가가 25점 만점이고, 동료 학생의 평가가 15점 만점으로 총 40점이다. 교사 평가의 점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동료 학생보다 교사가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사회자 평

가는 ‘상’이 3점, ‘중’이 2점, ‘하’가 1점으로 만점이 24점이고, 사회자의 역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 1점을 더해 준다. 총 25점 만점이고 최하점은 9점이다. 토론자 평가는 사회자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이 3점, ‘중’이 2점, ‘하’가 1점이고, 만점은 24점이다. 거기에 발언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을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 1점씩을 더해 준다. 그렇게 해서 총 25점이 만점이 되고, 최하점은 8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중 평가에서 토론 자세에 대한 평가는 자세가 좋지 않은 청중들을 표시해 1점씩 감점을 하고, 피드백 여부는 1회에 가점 1점씩을 한다. 청중 평가는 교사만 하게 된다.

② 동료 학생의 평가

학생들의 평가지는 되도록 간단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이들의 토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지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평가지의 내용이 너무 세부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교사 평가지보다 학생 평가지에서는 내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학생 평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학생들 토론 평가지

평가자 : ___학년 ___반 이름_____
1. 사회자 평가

(매우 잘함 3점, 잘함 2.5점, 보통 2점, 부족 1.5점, 매우 부족 1점)					
평가 기준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논제 설명 및 쟁점 제시					
2. 내용 이해도 및 내용 정리					
3. 중립적 입장					
4. 발언 순서와 시간 배분					
5. 발음 및 어조와 열의					
총점					

2. 토론자 평가

(매우 잘함 3점, 잘함 2.5점, 보통 2점, 부족 1.5점, 매우 부족 1점)

이름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자1	자2	자3	자1	자2	자3
1.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설득성, 명쾌성, 신뢰성						
2. 반박의 논리성 및 치밀성, 창의성						
3. 자료 이해도 및 자료의 적 절성, 신뢰성						
4. 표현과 전달의 효과성						
5. 자세 및 태도						
총점						

동료 학생의 평가지에서는 평가 점수를 보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매우 부족의 5단계로 나눈다. 각각 3점, 2.5점, 2점, 1.5점, 1점이다. 사회자나 토론자 모두 평가 항목이 5개이기 때문에 만점은 총

15점이고, 최하 점수는 5점이다. 교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0점은 없다. 이는 토론 경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피드백까지 매 토론마다 했다면, 110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100점 이후로는 모두 100점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총점이 높아지게 책정한 것은 토론을 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성실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교사의 평가나 학습자의 평가 모두 상호 비교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를 통해 토론자와 사회자는 스스로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하고, 다음 토론 혹은 그 이후의 생활에의 적용을 위한 건설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6. 패널식 찬반 토론 교수·학습의 실제 및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10일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입학 사정관제’가 입시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입학 사정관제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논제로 다룬 실제 토론의 대본을 제시하고, 토론 참여자(토론자, 사회자, 청중) 각각의 발언들에 대해 어떤 피드백을 하면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⁵³⁾ 현

53) 제시된 토론 대본은 2009년 성신여대에서 실시된 토론 수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토론 수업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조금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 대학생의 토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토론에서는 사회자 한 명과 찬성측 패널 두 명 반대측 패널 세 명이 토론을 하였는데, 찬성측 인원이 반대측보다 한 명이 적은 것은 찬성측에서 사회자가 선 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토론자 수를

장의 교사들도 토론 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적어 토론자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하는지 알기 어렵고, 또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할지 막막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나 토론을 직접 하게 될 학습자들에게 아래 제시하는 예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12〉 패널식 찬반토론 교수·학습의 실제 예시

〈논제 : 대학 입학 사정관계 도입 적절하다.〉		
<p>쟁점 1 : 입학 사정관계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VS 사교육 시장을 조성</p> <p>쟁점 2 : 입학 사정관 선발의 공정성과 입학 사정관의 전문성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인정 VS 대학 입맛에 맞는 학생 선발</p>		
발언자	발언 내용	발언 평가
<p>사회자 ①</p>	<p>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대학 입학 사정관 제 도입 적절하다.’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계는 말 그대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입학 사정관을 도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학 사정관은 학생의 내신이나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 환경,</p>	<p>사회자의 평가 항목 ①의 ‘논제 설명’이 잘 되었다. 사회자는 토론 시작 전 앞으로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청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p>

똑같이 해야 한 쪽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p>적성, 재능과 같은 성장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는 2007년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2008년부터 대학 자율화 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입학 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입시 선발을 지양하고, 점수로는 알 수 없는 개인의 소질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에 기대를 나타내는 반면에 입학 사정관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모호한 선발 기준에 의한 혼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큼니다. 이런 입학 사정관 제도가 현재의 교육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 소개) 기초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먼저 시작해주세요.</p>	
<p>찬성측 1-①</p>	<p>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는 수능 점수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던</p>	<p>찬성측 1-①에서 발언한 정작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p>

	<p>기존의 대입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대입 제도는 점수에만 의존하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입학 사정관 제도는 학력뿐만 아니라 잠재력, 재능, 가정환경 등의 다양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착 초기에는 혼란이 따를 것이며,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현재 입시 제도의 좋은 보완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p>	<p>좋다. 기초발언부터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나열하다 보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김이 빠져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발언은 최대한 개략적이고 명쾌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청중들은 발언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찬성측이 반대측에서 제기할 문제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먼저 시인하는 꼴이 된다. 토론자의 평가 항목 ①의 ‘주장의 명쾌성’이 부족하다.</p>
<p>사회자 ②</p>	<p>반대측 입론 부탁드립니다.</p>	
<p>반대측 1-①</p>	<p>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 사정관제에 올해(2009년) 2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에 힘입어 한국의 대학들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입학 사정관 전형의 모집 인원만 확대하고</p>	<p>반대측 1-①에서 비교적 자신 팀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기초 발언에서는 ‘현 제도(사안)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p>

	<p>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입학 사정관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조성할 뿐인 입학 사정관계의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현재 입학 사정관계의 사회적 인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대학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p>	<p>다. 토론자 평가 항목 ①의 '주장의 명쾌성'에 해당한다.</p>
<p>찬성측 1-②</p>	<p>지금 공정성과...</p>	
<p>사회자 ③</p>	<p>잠시만요.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가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먼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사회자 ③에서는 아직 첫 번째 쟁점의 시작 부분인데, 토론자가 쟁점 2의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자 쟁점 1에 대해 먼저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회자가 적절히 개입하여 잘 제지해 주었다. 이처럼 사회자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쟁점 관리를 잘해서 논점이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자 평가 항목 ④의 '쟁점 관리'와 ②의 '내용 이해도'가 잘 되었다. 그러나 이때 사회자는 양쪽을 계속 쳐다보지만, 잠시 침묵이 흐르</p>

		<p>며 시간이 지체 되었다. 이럴 때에는 사회자가 직접 발언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좋다.</p> <p>이것은 사회자 평가 항목 ⑤의 ‘발언 순서 및 시간 배분’에 해당한다.</p>
반대측 2-①	<p>비교과 영역과 자기 소개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입학 사정관계가 확대 실시되면, 각종 교내외 활동이나 수상실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에 필요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입시에 논술 반영 비율이 적어지면 논술 학원들이 많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논술 학원들이 자기 소개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거든요.</p>	<p>반대측 2-①에서처럼 ‘-거든요’식의 말투는 공식적 말하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격식체이다. 토론에서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말투를 빼 놓을 수가 없다. 토론과 같은 공식적 말하기에서는 되도록 격식체를 사용하되, 적절히 비격식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거든요’식의 말투는 ‘말버릇’에 해당되는 것이라 쓰지 않도록 조심한다.</p> <p>토론자 평가 항목 ④의 ‘반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p>
찬성측 2-①	<p>평가에서 수상실적이나 자격증, 잘 쓴 자기 소개서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 더욱 중요하게 보는 점은 개인이 기울인 노력과 정성입니다. 물론 자격증 같은 것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지만, 이 제도에서 중점</p>	<p>찬성측 2 발언자는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발화를 자주 하였다. 필자가 찬성측 2-①의 발언을 재구성하기 이전의 원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p> <p>“평가 기준에 있어서 물론 수상실적이나 자격증이나 좋은 자기</p>

	<p>적으로 보는 것은 학생의 노력과 얼마나 자기 계발에 충실했느냐는 것입니다.</p>	<p>소개서가 점수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 보는 점은 개인에 대한 노력과 얼마만큼의 정성을 포함하였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물론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가산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학생의 노력과 얼마나 자기 계발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p> <p>대충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만 정확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글이 아닌 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문맥에 어긋나지 않는 발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토론자 평가 항목 ④의 ‘전달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p>
<p>반대측 1-②</p>	<p>개인의 노력과 정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노력과 열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생 기록</p>	<p>반대측 1-②를 보면, 찬성측에서는 학생 생활 기록부에 있는 점수를 반영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찬성측에서 마치 그렇게</p>

	<p>부에 의거한 점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지방 고등학교의 내신조차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이 써 주는 학생의 개인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개인의 성실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p>	<p>이야기한 듯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 발언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준비해 온 자료에서 본 내용을 상대측이 발언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p> <p>이것은 토론자 평가 항목 ②의 ‘반박의 치밀성’이 부족한 것이다.</p>
<p>찬성측 2-②</p>	<p>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였는지 정확하게 보여 준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요?</p>	
<p>반대측 1-③</p>	<p>올해 들어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이루어진 후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입시 때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을 당장 2010년 입시부터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p>	<p>반대측 1-③의 발언은 입학 사정관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시기적인 것만이 문제라는 얘기가 된다.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대안 토론을 할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전제 하에 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형식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제시할 쟁</p>

		<p>점들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토론자 평가 항목 ①의 주장의 논리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떨어진다.</p>
<p>찬성측 2-③</p>	<p>그럼 준비가 이루어지면 이 제도를 시행해도 된다는 소리 같은데요?</p>	
<p>사회자 ④</p>	<p>시기의 문제나 제도의 완비성, 불완비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가 공교육을 얼마나 정상화시키며, 또 얼마나 사교육을 조장시키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시키려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목고를 우대하는데에 적용됨으로써 사람들이 특목고에 가기 위해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포항공대의 총장은 “내년 입학 사정관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신을 학교에 따라 등급 매기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더욱 우려의 힘이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사회자 ④에서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없자 사회자가 질문을 통해 적절히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p> <p>사회자 평가 항목 ⑦의 ‘열의와 적극성’이 좋은 것이다.</p> <p>그러나 이 발언에서도 보이다시피 사회자는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자주 보인다. 이것은 토론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한다. 사회자는 패널들을 장악해서 토론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말투가 필요하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또박또박 말해야 하는 것은 패널들도 마찬가지이다.</p> <p>평가 항목 ⑥ ‘발음 및 어조’ 부분이 부족하다.</p>

<p>찬성측 1-③</p>	<p>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이나, 또 다른 방면에서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입학 사정관 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획일화된 학생들을 뽑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학 사정관이 그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확대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반대측 2-②</p>	<p>지금 공교육이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정사에서 논술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논술 학원이 침체되어 있다가, 입학 사정관계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컨설팅 중심의 고급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협회 회장 말을 빌리자면, 현행 공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잠재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에는 미흡한데도 대학들이 입학 사정관 제도</p>	<p>반대측 2-② 발언은 공교육 교사 몇 명의 인터뷰 자료만으로 전체를 판단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p> <p>토론자 평가 항목 ③의 ‘자료의 적절성’ 부분이 약하다.</p> <p>또한 반대측 2는 한 번의 발언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발언이 길게 늘어지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토론을 지루하게 만들 수가 있다.</p>

	<p>를 확대키로 한 것은 결국 사교육을 받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너무 공교육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장 교사들마저도 예를 들어 부산 A고 교사 정모 씨의 말을 들면요, “성적이 좋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 떨어진 것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고, 선발 기준도 없다보니 자신들의 지도 또한 막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B고의 교사 정모 씨는,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아 관련된 활동을 해야 입학사정관 전형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입시는 개인에게 많은 책임이 부가되고, 교사들이 공교육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공교육 현장 교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p>	<p>토론자 평가 항목 ④의 ‘반언어적 표현’이 부족하다.</p> <p>사회자는 어느 정도 발언 시간이 길어진다면 패널에게 발언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p> <p>사회자 평가 항목 ⑤의 ‘발언 순서와 시간 배분’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했다.</p>
<p>찬성측 2-④</p>	<p>하지만 입학 사정관계에서 학생을 뽑을 때 그렇게 기준화된 점수만이 아니라, 성장 환경 등 비교과 영역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요. 성장</p>	

	<p>환경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동일한 점수대의 학생이 있다면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학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에게 점수가 더 많이 부가된다고 합니다.</p>	
반대측 2-③	<p>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p>	
반대측 3-①	<p>그리고 또 그것이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조건 성장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대학을 더 쉽게 간다거나 그런 것은...</p>	<p>찬성측 2-⑤와 반대측 3-②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측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발언하는 것은 토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자신과 같은 팀의 패널이 발언을 하는 데에도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확실히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토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만약 같은 팀에서 동시에 발언을 하려는 경우,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다. 개인별 토론이 아닌 팀별 토론이라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토론자 평가 항목 ⑥의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가 되지 않았다.</p>
찬성측 2-⑤	<p>제가 말씀 드린 것은 동일한 점수대에서...</p>	
반대측 3-②	<p>네. 어쨌거나 성장 환경이 안 좋은 점이 대학을 갈 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p>	

		<p>발언권을 가지고 계속 다들 경우 사회자가 개입해 제지하고, 발언권을 정해준다.</p> <p>사회자 평가 항목 ⑤의 ‘발언 순서와 시간 배분’부분에서 부족했다.</p>
(중략)		
찬성측 2-⑥	<p>저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입학 사정관 제도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잘 갖춰져 나간다면 사교육 시장이 결코 팽창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찬성측 2-⑦에서 미국에서 입학 사정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스펙을 장기적으로 기획, 관리해 주는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p> <p>토론자의 평가 항목 ①의 ‘주장의 논리성’ 부분이 부족하다.</p> <p>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이라는 발언에서도 주장에는 그를 뒷받침해 주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측 2-④에도 적용되는 지적이다. 즉 자신이 조사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같은 사안에 대해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p>
반대측 2-④	<p>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에는 입학 사정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스펙을 장기적으로 기획, 관리해 주는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p>	
찬성측	<p>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예일 뿐이</p>	

2-⑦	고요. 사실상 미국 대부분의 유명한 학교들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소문만 봐도 미국에선 결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료는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토론자의 평가 항목 ③의 '자료의 적절성'부분이 부족하다.	
(중략)			
반대측 2-⑤	앞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된다는 미래의 계획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문 인력이 충분히 양성될 때까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학생 선발을 눈 감아 주자는 식입니까?	반박 대 반박이 막힘없이 잘 흐르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반대측 3이 마지막 ④번째의 발언에서 찬성측의 발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버려 발언이 끊겨버린 점이다. 이런 모습은 다른 토론자들에게서도 간혹 보였는데, 갑자기 할 말이 막힌다거나 말이 꼬였을 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럴 경우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발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렇지 않고 이처럼 웃어버리면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론자의 평가 항목 ⑦의 '바른 자세' 부분에서 감점이 된다.	
찬성측 2-⑧	눈 감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정착시킨다면...		
반대측1 -④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정착시키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찬성측 2-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측 3-③	그렇다면 그 문제점으로 인해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찬성측 2-⑩	불합격자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측 3-④	그럼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웃어 버림)		
찬성측	어떤 학생이 피해를 입은 학생인지		찬성측 2-⑩에서는 자신 팀에게

2-①	어떻게 알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학생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학생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지 않은가요?	불리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반대측 3-⑤에서 보이듯 같은 주장에 대해 역으로 반박을 당하는 것이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이다. 자신이 하는 발언이 자기 팀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한 토론 준비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해소될 수 있다.
반대측 3-⑤	그것이 바로 입학 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입학 사정관제는 합격자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 평가 항목 ①의 '주장의 논리성'이 떨어진다.
(중략)		
반대측 2-⑥	지금 패널분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찬성측 1-④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 2-⑦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도 아무래도 평가 항목 자체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 주관성을 이용해서 대학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찬성측 1-⑤	대학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	찬성측 1-⑤ 등에서 대학 입맛에 맞춘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 꼭 나

	<p>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입장에 서도 좋은 것 아닌가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해서 그 소질과 적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과에 지원하면 자신들의 꿈도 이룰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학 전형을 찾는다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학 제도에서 입학 사정관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 전형도 면접관 서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때에도 당연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왜 이 입학 사정관 제도의 주관성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p>	<p>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는 좋다. 그것이야말로 뒤집어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대학 입맛에 맞는 학생 뽑기’를 부정적으로 틀 짓기 할 수 있으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대학이 자신들이 키울 학생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뽑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짜여 있는 구조를 빠져 나오는 것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력이 키워질 수 있다.</p> <p>토론자 평가 항목 ②의 ‘반박의 창의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p>
(중략)		
<p>사회자 ⑤</p>	<p>이쯤에서 청중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에 질문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세요.</p>	
<p>청중 1</p>	<p>찬성측에서 창의력, 잠재력 등의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마련되면</p>	<p>청중 1은 앞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고 있다. 청중들은 토론자 못지않게 토론에 집중하고 있어야 이처럼 이미 논의된 부분을 되묻는 일이 없</p>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측 1-⑥	일단은 사교육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봉사 활동이라든가 체험 활동 같은 부분 때문에 사교육이 결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을 것이다.
(중략)		
사회자 ⑥	반대측에 의견 제시할 분들 손들어주세요.	
청중 2-①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 세계 일주를 했던 학생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더욱 수월하게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도 획일화된 학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중 2의 ①번째와 ②번째 질문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청중 2-①의 질문을 보면, 이 제도를 통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2-②의 질문을 보면 이 제도는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중들은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을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측 2-⑧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인데요.	
반대측 1-⑤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지, 세계 일주 하는 것은 결국 정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려야지만 짧고 명확한 질문을 통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p>청중 2-②</p>	<p>세계 일주와 같은 경험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반대측 1-⑥</p>	<p>사교육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균적인 고3 학생들이 작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자기소개서 같은 것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교육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p>	
<p>(후략)</p>		

청중들이 질문한 것이 질이 낮다거나 불필요한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수업의 적극적 참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청중 평가는 발언 횟수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한다.

본 토론에서 위에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토론자들이 토론 중반까지 스크립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발언들이 길어지고 시작부터 지루한 느낌을 주었다. 토론 시작부터 가능하면 스크립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패널들이 스크립트에만 너

무 의존하면 발언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토론이 제대로 불붙지가 않는다. 위의 토론에서도 초·중반 스크립트에 의존하다보니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료를 읽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었다. 아주 디테일한 자료 이외에는 논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 청중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 아주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많이 준비하고 공부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은 토론자의 평가 항목 ③‘자료 이해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반대측 토론자 2는 ‘입학∨사정관계’를 계속 ‘입학사∨정관계’라고 발음하였다. 입학 사정관이라는 본래의 뜻에 맞도록 제대로 띄어서 발음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어 사용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신뢰감을 주는 토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토론자 평가 항목 ④‘적절한 반어어적 표현’에서 감점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자는 패널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고, 끊임없이 패널들을 준비시키고 고무시켜야 한다. 그런데 토론 중간에 사회자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패널들을 그냥 방치해둬 버렸다. 사회자는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 패널은 없는지, 아니면 계속 발언 기회를 놓치는 패널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패널들에게 눈짓이나 손짓으로 다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사회자는 내용 정리만 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토론 중간 중간에 패널들의 발언 내용을 꼭 정리해 주어야 청중들이 토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된다. 사회자 평가 항목 ⑦‘열의와 적극성’부분과 ②‘내용 정리’부분에서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청중 의견 뒤의 그 다음 토론은 앞의 논의에 대한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첫 번째 쟁점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바로 마지막 쟁점으로 가버려 청중 의견 듣기 전에 이미 토론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자는 시간 배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뒷부분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자 평가 항목 ④‘토론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피드백 외에도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실수하는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 본고에서 그 모든 예들을 다 다룰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예들을 골라 지적해 보았다. 특히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사회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드백은 비난을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토론자와 사회자의 발전된 화법 능력을 위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의 시간이 너무 딱딱하게 흐르지 않도록 교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해 주도록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토론 교육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이고,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주는 수업 방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관련자들(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으로 ‘토론 교육’을 뽑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적인 부분과 교사들의 토론 지식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 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토론 수업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서론에서는 토론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토론 수업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론에서는 토론에 대한 기초적 논의와 패널식 찬반 토론의 선택 근거, 제7차 『화법』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토론자와 교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토론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평가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 방안이 적용된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국어과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모형이지만, 다른 과목의 수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에 앞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 가능한 더욱 실질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8.
- 김광해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형설출판사, 2003.
- 이주행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금성출판사, 2003.
- 이중구,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세기문화사, 2003.
- 차배근,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지학사, 2003.
- 김광해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지도서』, 형설출판사, 2004.
- 이주행 외,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지도서』, 금성출판사, 2004.
- 이중구,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지도서』, 세기문화사, 2004.
- 차배근,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 지도서』, 지학사, 2004.
- 이희승 감수,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제4판), 민중서림, 1993.

2. 단행본

- 강대현, 『초·중·고 토론학습지도자료 (3) -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 요령
과 주제별 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강태완 외,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구정화, 『학교 토론수업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9.
- 김복순, 『토론의 방법』, 국학자료원, 2007.

- 이주행 외, 『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2004.
-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 한상철, 『토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 논문

- 김지선, 「토론식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한신대 교육대학원, 2008.
- 김혜련, 「TV토론에 대한 매체언어교육적 접근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노은희, 「국어과 선택 과목 "화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 국어교육학회, 2007.
- 박세환, 「토론 능력의 개념 구성 및 측정에 관한 연구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 논문, 2001.
- 박영희, 「패널식 찬반 토론 학습의 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엄이섭, 「고등학교 국어 토의·토론 교수-학습의 방법 연구 :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5.
- 이인섭, 「화법 교육의 일방안」, 한국어교육학회, 1998.
-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현숙, 「토론 교육을 통한 중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부경대 교육대학원, 2006.

- 전은주, 「토론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조건변인 분석」, 국어교육학회, 2004.
- 전은주, 「‘화법’ 교과서의 요건과 개발 방향」, 한국화법학회, 2008.
- 정재찬 외, 「국어과 토의·토론 학습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선청어문 제26호, 1998.
- 최복자,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 토론 능력과 토론 교육」, 한국화법학회, 2005.
- 최복자,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 한상준,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 Freeley, A. J., *Argumentation and debate :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9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 1996.

ABSTRACT

Plans For Effective Debate Class.

—Focusing on An Optional Subject of High School, 'Speech' Class—

Hyun Hye Ji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bate is the best way to reasonably solve problems among people with different opinions when facing numerous conflicts and problems. The most crucial skill in debate is to express opinions logically and to listen to others carefully. However, many of people in modern society are trying to express their own claims rather than listening to others in debate. Debate class is a foundation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ich recognizes that people have 'different' viewpoints, not thinking others' opinions are 'wrong'.

Debate education helps to foster not only critical thinking, but also, logical thinking and social communication skill of learners. For that

reason, numerous students and parents insist that 'Discussion and Debate' should be need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practical debate education isn't being effectively conducted at actual educational sites, since the education system focuses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in Korea, many teachers lack 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training of debate class and there is no enough time for debate class.

Establishing debate education is the most pressing task in order to form a desirable debate culture, and systematical learning and continuous training of proper debate method and procedure are very important. This study is therefore, is to seek for practical procedure and plans of debate class to be used at educational sites by taking limitations of debate class into consideration, focusing on 'speech' lesson that is an optional subject for the 11st~12nd graders. Furthermore, its assessment methods were suggested.

Key word: debate education, panel-typed pro-con debate, learner-oriented, feedback.